

**2** 업적  
의료인으로서의 삶과  
교육인으로서의 삶

**3** 추도사  
최양희 총장  
송호근 도원학술원장  
이재준 춘천성심병원장  
이한길 총학생회장

**4** 사진기획  
인간에 실천한 경영인  
도현을 기리며

[알림]  
윤대원 이사장님은 우리 대학의 명성과 위상을 드높이려 누구보다 헌신하셨습니다.  
윤 이사장님의 노고를 기리고자 한림학보에서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 ‘의료·교육 선구자’,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별세

### 인류애·배움 강조하며 사업 이어 나가... 2대 걸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제2대 이사장이 별세했다.

윤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노환으로 서거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1945년 6월 23일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윤덕선 일송학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연과 하나 돼 뛰어들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용산중학교에서 생물 채집단의 일원이 돼 자연을 탐구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경외심을 깨닫는다. 이후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의학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외과 의사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의료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최초 신장이식 수술, 국내 최초 췌장 이식 수술 성공 등 한국 의학 발전에 공헌한 바 있다.

원장과 한림대의료원장을 거쳐온 고인은 일송 윤덕선 박사의 뒤를 이어 1989년 일송학원 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99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2013년 한림대학교



▲지난해 린네 메달 수상식에서 수상한 윤대원 이사장의 모습이다.

동탄성심병원을 개원하고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복지관을 이끌었다.

윤 이사장은 배움이 국력과 인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1997년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 2004년 한림국제대학원, 2022년 도원학술원을 개설·설립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애

를 강조하며 의료사회복지지를 확장해 왔다.

1974년 성심자선병원이 문을 열 당시 부원장으로 영세민에게 무료 진료를 이어갔으며 이후에도 여러 의료센터와 복지관을 설립했다. 청소년 장학금 조성도 취약계층

복지 사업, 해외 의료봉사에도 힘썼다. 해당 공헌으로 보사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2003년에는 ‘Mighty Hallym’을 선포해 최고의 진료·연구·교육기관으로 도약하려 노력했다.

정부는 윤 이사장의 의료 발전과 국민 생명 보호,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쓴 공적을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지난달 26일 추서했다. 앞서 일송 윤덕선 박사 역시 국내 최초의 민간 종합병원인 필동성심병원 및 우리 대학 설립 등 교육과 국가산업에 끼친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훈장을 수훈 받은 바 있다. 해당 훈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한다.

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면 선영에 안장됐다. 윤대원 이사장의 부인 윤봉옥 여사의 장지이기도 하다. 한편 제3대 일송학원 이사장은 고인의 장남인 윤희성 일송학원 상임이사가 맡는다.

손승현 기자 ssh1002@

## 故 윤대원 이사장 영결식·고별식 엄수

### 28일 남양주 장지에 안장... 지역 인사들 추모의 물결



▲지난달 28일 일송아트홀에서 윤대원 이사장의 고별식이 진행됐다.

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제공

지난달 28일 많은 인사들의 추도 속에 윤대원 이사장이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이날 오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영결식이 진행될 때 이어 오후에는 우리 대학 일송아트홀에서 윤대원 이사장의 고별식이 거행됐다. 고별식에는 최양희 총장을 비롯해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중수 전 총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중수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식순은 ▲훈장증서 낭독 ▲천주교 춘천교구 김주영 시몬 주교의 기도 ▲고인의 육성 말씀 ▲최양희 총장의 고별사와 송호근 도원학술원장의 조사 ▲김중수 장례위원장의 인사 ▲조객 대표들의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윤대원 이사장은 생전 국가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장에 추서됐다. 최양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증서를 낭독했다. 최양희 총장은 “이사장님께서 의료분야에 고귀한 헌신 및 한림대를 비롯한 교육기관 운영에 애정을 쏟았다”며 “뜻을 받들어 한림대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다짐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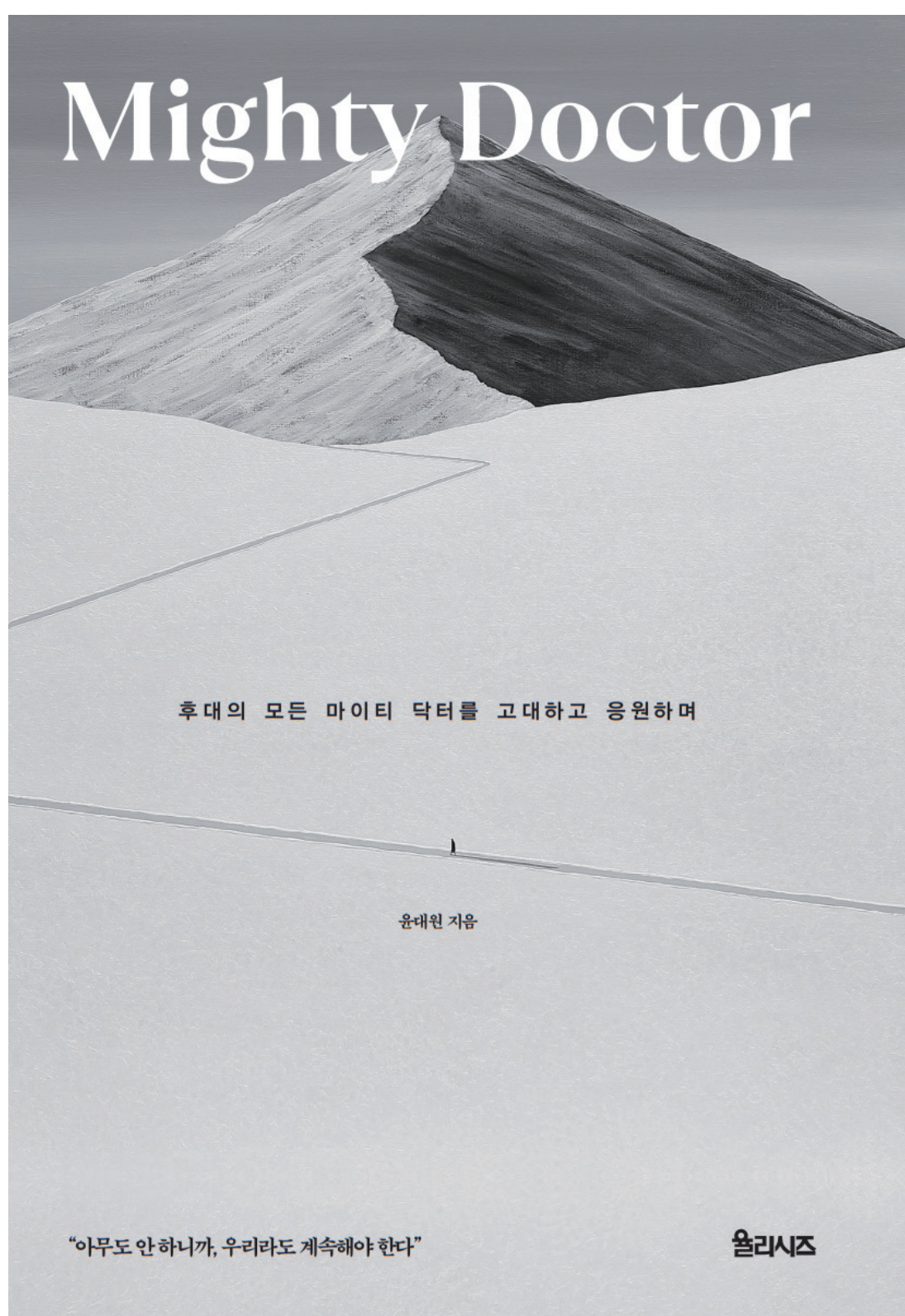
조사를 낭독한 송호근 도원학술원장은 “이사장님이 평생 해오신 의사의 소명, 교육자의 신념, 사회봉사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리라 쉽지 않다”면서 “이제는 힘들었던

여정을 접고 편안히 안식하기를 복망한다”고 말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중수 전 총장은 “윤대원 이사장님의 지혜를 더 이상 얻지 못해 아쉽다. 더불어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림대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이제는 존경하는 이사장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시간이 찾아왔다”는 말을 끝으로 고별식이 마무리됐다.

고별식이 끝난 뒤 고인은 유가족 및 대학 관계자들의 마지막 배웅 속에 장지인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 안장됐다.

박도협 기자 20181037@



# Mighty Doctor

후대의 모든 마이티 닥터를 고대하고 응원하며

윤대원 저음

“아무도 안하니가, 우리라도 계속해야 한다”

올리시스

▲윤덕선 이사장이 생전에 집필한 자전적 저서 《마이티 닥터》가 지난 23일 발간됐다.



## 의료인으로서의 삶

# 생명의 최전선에서 인간애를 실천하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의료 사회 복지의 선두  
한평생 인술 베풀며 의료 선진화 이끌어



▲1977년 가톨릭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식에서 / 윤덕선 전 이사장(왼쪽) 윤대원 이사장(가운데) 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제공

윤대원 이사장이 50년 남짓 의료 기술 발전과 의료 사회 복지에 이바지한 결과 지금의 우리 대학 의료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국내 첫 최장 이식 수술 집도의]

어렸을 때부터 생물과 자연에 경이심을 느끼고 인간을 포함한 생명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윤 이사장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의대 생활이지만 밤낮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했다. 수술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서해 덕적도에서 전공의 수련 시절을 보낸 후 장기 이식 수술과 첨단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쌓으며 미국행을 결심했다.

귀국 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그는 1985년 신장 이식 수술을 한림의료원 최초로 성공시켰다. 2년 뒤인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최장 이식 수술에 성공하는 등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며 국내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박애주의 정신으로 실천한 의료 사회 복지]

1974년 윤 이사장이 성심자선병원 부원장이던 시절, 영세민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의료 사회 복지는 끊임없이 이어져 갔다. 이후 성심자선병원은 7년 반 동안 약 10만 명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의료 봉사를 펼쳤다. 윤 이사장은 1991년부터 한국노인보건 의료센터, 성심복지관, 안양복지관 등을 설립 및 개관하며 의료 서비스를 넘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에도 공헌했다.

또 그는 “생명을 방지할 수는 없다. 아무도 안 하려는 생지옥 같은 화상 치료를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며 2008년 화상 환자의 사회복지만을 위한 한림화상재단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환자의 치료비 후원은 물론이며 소아 환자가 흉터나 치료 탓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화상병원학교도 만들어 운영했다. 베트남 등 8개국 화상 환자들에게 지원된 진료비는 18억 2천 430만 원에 달한다.

## [아시아 최초 린네 메달 수훈]

생물학자 ‘칼 폰 린네’의 탄생 300주년을 가리는 의미로 2007년 제정된 ‘린네 메달’은 매년 과학에서 우수한 업적을 가진 인물에게 수여된다. 윤 이사장은 2020년에 린네 메달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하며 의과학 발전의 공로를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그 당시 코로나 폐데믹으로 인해 3년 뒤인 2023년 우리 대학에서 수상식을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및 병원과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나갔다. 2004년부터 미국콜롬비아의과대학, 코넬의과대학, 스웨덴 욘살라대학교 등과 긴밀한 의료학술 파트너십을 맺으며 양국의 의학 발전과 국제교류 가교역할을 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실천했다.

한편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내에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으로 확장했다. 이로써 다양한 진료과목을 아우르고 환자들에게 최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지혜 기자 20217111@

## 교육인으로서의 삶

# 의사 윤대원 교육인으로 변모, ‘마이티 한림’ 만들어

“배움은 국력과 인류 행복 추구의 핵심”  
동아시아 연구부터 글로벌 대학까지

윤대원 이사장은 한림대 의료원 최초 신장이식 수술 성공, 국내 최초 최장 이식수술 성공 등 의료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이런 그는 1989년 제2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교육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 [의료에 이은 또 다른 최초에 도전하다]

윤대원 이사장은 교육인으로 활동하며 또 다른 ‘최초’를 써 내렸다. 그는 1997년 국내 최초의 전신컨벤션 전문 연구 기관인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을 개설하며 MICE 산업의 선두 주자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며 컨벤션전시학과를 개설했다. 윤대원 이사장 주도하에 일송학원은 MICE 산업의 선두 연구,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윤 이사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컨벤션 관련 연구, 교육은 국내 최초라는 명맥을 이어가며 내실을 다졌고, 이는 결국 우리 대학이 올해 MICE기획경영전공을 신설할 수 있던 배경이 됐다.

## [배움에는 제약이 없어야 하기에]

교육을 향한 윤대원 이사장의 노력은 의료인으로서 시각과 더해지며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특히 화상 환자에 주목했다. 그는 소아 화상 환자가 긴 재활 시간을 거치는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길 원했다. 이를 실현하고자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화상병원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덕에 현재까지 1만 2천 755명이 넘는 화상환자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 [마이티 한림을 향해]

윤대원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을 써 내려가면서 그 핵심이 되는 고등교육 발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2003년 ‘마이티 한림(Mighty Hallym)’을 선포하며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의 꿈을 알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콜롬비아의과대학, UCLA, 나가사키대학, 욘살라대학교 등 국제 일류 대학들과 학술 파트너십을 진행하며 국내 의료 교육의 선진화를 주도했다. 한편, 윤대원 이사장은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K-고등교육모델과 최근 큰 주목을 받는 AI를 교육에 접목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벌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 [문명전환을 이끄는 지성의 창출]

윤대원 이사장은 21세기 비약적인 기술발전의 명과 암을 바라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을 고민했다. 2022년의 도한학술원 설립은 그 고민의 결과이다. 도한학술원은 문명대변혁의 물결을 헤쳐나갈 지성을 창출하는 학술·연구 뿐 아니라 시대적 쟁점들을 적시하고 체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 기구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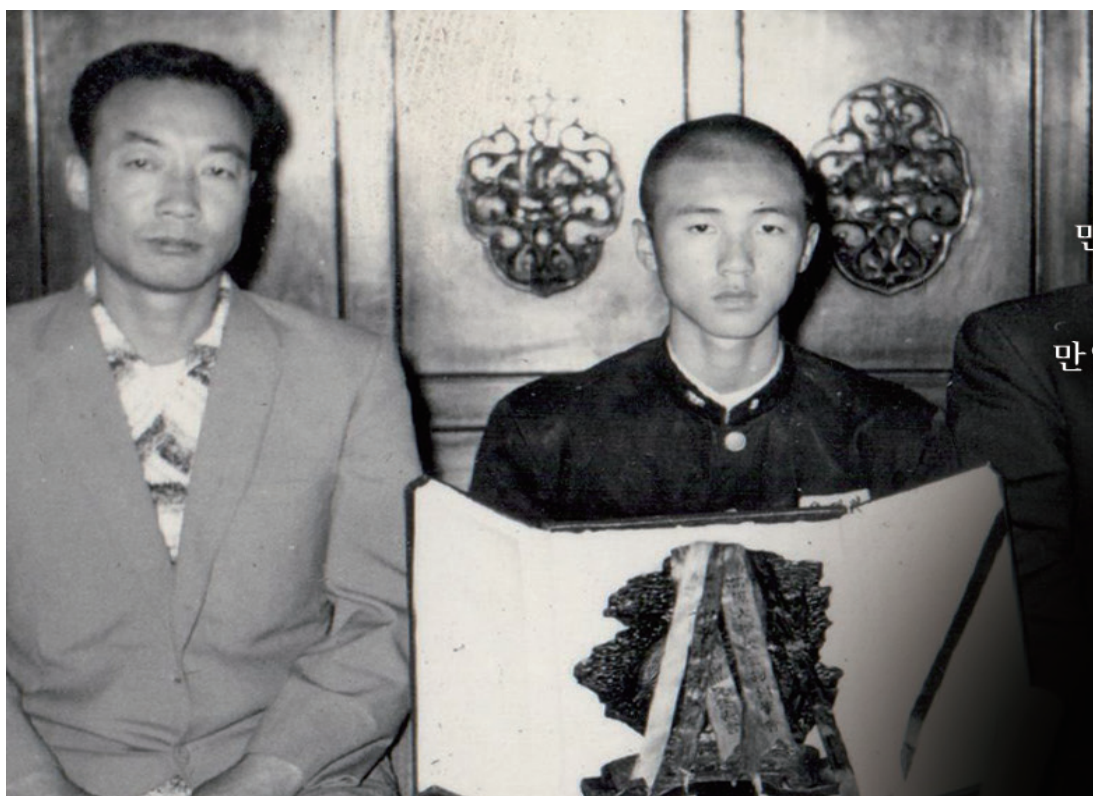
안디모데 기자

elahep1217@hallym.ac.kr



▲2006년 마이티 한림 제2기 선포식

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제공



▲1958년 용산중학교 재학 시절 ‘전국학생생물연구발표회’ 1등상을 수상하고 부친 윤덕선(왼쪽)과 함께 / 윤대원 이사장이 평소 좋아했던 시이자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념이 담긴 시이자 경구.

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제공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점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흩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岬)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로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領地)가 그리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좋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존 단(John Danne · 1572~1631)의 기도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中



# “먼 하늘에서도 지켜봐 주십시오.”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일송학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한림대학교 발전의 핵심이셨던 윤대원 이사장께서 돌아가시다니 믿기지 않고 깊은 슬픔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사장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윤 이사장께서는 의료라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며, 항상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일송학원을 통하여 의료법인 운영에 앞장서셨고, 특히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에 힘쓰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의료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사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리더십 덕분에 의료원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의료기술 발전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또한 컬럼비아대

학, UCLA, 파도바대학, 음살라대학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및 병원과 활발한 교류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끊임 없는 노력 덕분에 한림의료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적으로 2020년 스웨덴 음살라대학에서 수여하는 노벨상 수준의 린네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 인력 양성에도 힘쓰셨습니다.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대학은 의료 분야에서 명문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께서서는 단순히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뿐 아니라, 윤리 의식과 인간애를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특히 힘쓰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의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심어 주시고, 환자를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님께서서는 우리 대학 전체의 발전에도 깊이 기여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끊임 없는 노력과 제한없는 지원 덕분에 한림대학교는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명문 사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바람직한 기관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일송학원 산하의 모든 교육관련 조직이 투명하면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장기전략, 즉 글로벌

최고의 혁신대학, AI대학으로 키우려는 계획은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대학에 오셔서 주신 지혜로운 말씀과 격려하는 한림대학교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곤 했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을 다시는 수요일에 뵙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윤 이사장님께서서는 정직과 검소를 중요시하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의감과 솔직한 태도로 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검소한 생활을 통해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모범적인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장님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를 이어받아, 정직하고 검소하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윤대원 이사장님께서서는 의료, 교육 분야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윤 이사장님을 추모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유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이사장님의 뜻을 이어 한림대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

오호통재라, 이렇게 소중한 분을 향망하게 떠나보내야 하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인은 평생을 인류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그의 업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환자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베풀며, 의학의 최전선에서 싸워오신 분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고인의 따뜻한 미소와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교육자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학

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의 지도 아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으며, 그의 교육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늘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그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무한한 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열정과 가능성만을 보고 저의 앞길을 밝게 밝혀주신 것처럼 고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중한 가르침과 추억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비록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뜻을 따라 당신이 보여주신 헌신의 삶을 기억하고 또 따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한길**  
한림대학교 총학생회장

한림대학교 총학생회장 이한길입니다.

슬픔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일송학원재단의 윤대원 이사장님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렬한 의지로 나아가는 강력한 응전은 위대한 결과를 탄생시킵니다.”

윤대원 이사장님은 우리 학교와 재단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장님의 지도 아래, 우리 학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항상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

울이고,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인류 행복과 인간애가 최우선적이야 한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우리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 공헌하셨습니다. 의료사회복지 확장에 힘쓰셨고 생지옥 같은 화학치료를 아무도 하려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노력하셨으며 우리나라 의료계에 큰 영향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윤대원 이사장님의 떠나심은 우리에게 큰 상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장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꿈과 목표를 기억하며, 이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한림대학교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윤대원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사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그의 가족과 친지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편히 쉬십시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한학술원장

이사장님, 어제 늦은 오후 소천하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한동안 넋을 놓았습니다. 초여름의 하늘은 한없이 맑았고 나뭇잎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이 화려한 계절에 팔십 평생 생애를 다하셨다니 이 대비적인 광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꽃이 지면 다시 피지만 인간의 생명은 작별을 고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저희들과 작별한다는 작은 귀뜸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영성의 세계로 가버리시니 남겨진 저희들은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평생 의사의 소명과 교육자의 신념을 불태우셨습니다. 의사와 교육자는 하늘이 점지한 신성한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이기에 여느 직업과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 사람들의 지

혜를 배양하는 교육자, 이 두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이사장님은 이 지난한 과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체력(體力)과 정신적 지력(智力)이라는 두 개의 자산을 길러야 자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도덕적 감성(德義)이 부가되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교양인으로 거듭납니다. 이사장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지양, 덕양, 체양을 길러내는 도량(道場)을 힘써 가꾸고 매만지셨습니다. 거기서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해서 사회로 돌아갔고, 청년들은 교양인으로 성장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길들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30년, 이사장님이 애지중지 키우신 병원과 대학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가장 중대한 정기(精氣)인 지적체의 생산기지입니다. 서울과 춘천시민들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한림대 성심병원을 사랑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성심병원에서 서울 도심지보다 주변부에 있기를 선호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 보금자리였습니다. 신림동에 50년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신 것도 그런 배려입니다. 봉의산 자락에서 시대를 굽어보는 한림대는 시민들에게는 어느새 지성의 등대가 됐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시민들은 한림대와 더불어 지성적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의사의 헌신과 교육자의 열정이 도덕성에 의해 물들여져 세상에 전파될 때 현실은 비로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이사장님은 지양, 덕양, 체양이 함께 어우러져 희망과 기쁨의 춤을 추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소천하시는 그 시각, 이승에 남겨진 저희들의 가슴에 이사장님의 그런 전갈이 와 닿았습니다.

이사장님, 매주 대학에 오셔서 저희들의 푸념을 들어주시던 그 인자한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인 평양을 떠나 월남하신 후 겪으셨던 그 파란만장한 생애에 비하면 저희들의 얘기는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말없이 웃으시던 표정에서 선배 세대의 따뜻한 격려가 느껴졌던 것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이사장님이 이룩하신 생애 업적을 이제 후배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경황이 없어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고자 합니다. 하늘저 먼 곳이라도 부디 저희들에게 소중한 귀뜸을 해주십시오 앞드려 바랍니다.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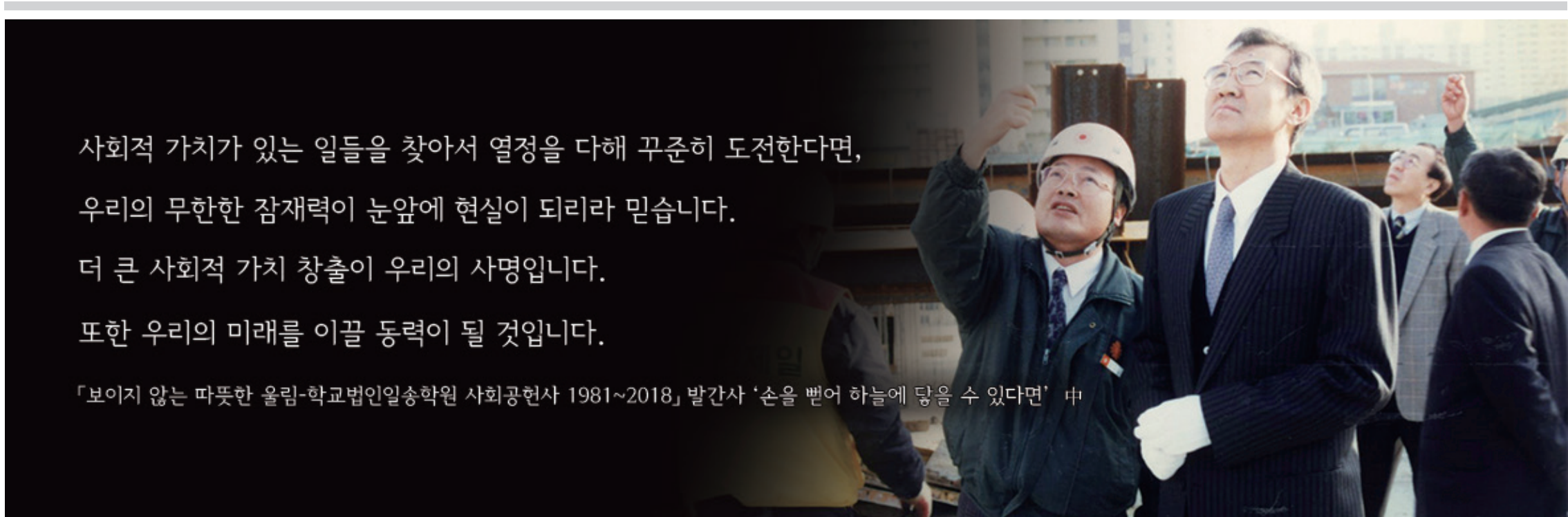
고달팠던 육신을 이 세상에 두시고 부디 천주의 품에서 안식하십시오.

## 한림학보 THE HALLYM UNIVERSITY WEEKLY

발행인 최양희      주 간 주영기      편집장 강호빈

1983년 5월 14일 창간 / 정기간행물 제3종 우편물 나급인가  
저작권자 © 한림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25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캠퍼스라이프센터 9-307호 / http://news.hallym.ac.kr  
기사제보 및 문의 전화 (033)248-2871 / 이메일 news@hallym.ac.kr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정을 다해 꾸준히 도전한다면,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이 눈앞에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따뜻한 울림-학교법인일송학원 사회공헌사 1981~2018」 발간사 ‘손을 뻗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면’ 中



# 인간에 실천한 경영인 도헌을 기리며



## 故 도헌 윤대원 이사장

1945. 06. 23. ~ 2024. 06. 25.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업적

- 1985 한림대학교의료원 최초 신장이식 수술 성공
- 1987 국내 최초 췌장이식 수술 성공
- 1991 한국노인보건 의료센터 개원
- 1997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ICEM) 개설
- 한림대학교 서울센터 개원
- 1999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개원
- 신림종합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
- 200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부설 안양복지관 개관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 생활위기자금 조성(SOS 기금화)
- 2002 강원도 수재민 의연금 전달
- 2003 Mighty Hallym vision 선포(1기)
- 사회공헌사 <누가 바람을 보았으리> 발간
- 2004 한림-컬럼비아-코넬 의과대학 교류협약 체결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설립
- 2005 동남아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지역 의료지원단 파견
- 2006 Mighty Hallym vision 선포(2기)
- 2007 한림-일본 나가사키 대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
- 2008 ECO Hallym 환경경영선포
- 한림화상재단 설립
- 한림-옵살라대학교 국제교류 협의
- 한림-오올루대학교 국제교류 협약
- 2009 한림-미국 조지워싱턴 의과대학/의료원 교류협약 체결
- UN 밀레니엄 프로젝트 10만 달러 지원

- 2010 Mighty Hallym vision 선포(3기)
- 한림-파도바대학교 국제교류 협약
- 2011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지원금 1억 원 기부
- 인도네시아 자바섬 화상환자 무료진료
- 2013 동탄성심병원 개원
- 필리핀 태풍피해지역 의료지원단 파견
- 2014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의료지원
- 2015 한림-UCLA메디컬센터 국제학술 심포지엄
- 2017 한림-나고야시립대 심포지엄
- 2018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개시
- 의료원 We路 캠페인 런칭
- 2019 Mighty Hallym 4.0 vision 선포
- 한림-나가사키 국제학술 심포지엄
- 사회공헌사 <보이지 않는 따뜻한 울림> 발간
- 2020 아시아 최초로 스웨덴 옵살라대학교 주관 린네 메달 수훈 (2023년 수상식 거행)
- 2021 학교법인일송학원 ESG위원회 신설
- 제1회 기부 비추얼린 WeRunWe路 개최
- <한림대학교의료원 50년사·병원사> 발간
- 2022 의료수익 1조 원 달성
- 도헌학술원 개원
- 2023 한림대학교 글로벌대학 선정
- 2024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